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9호 【루게 제 24752호】 주제 103(2014)년 12월 5일(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 13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 13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김영철동지, 최귀현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맞이하는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6년 12월 이곳 군부대관하 조영호영웅중대를 찾으시여 주신 유훈교사관철정함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을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따듯이 손잡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곳 군부대는 무적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흡정치대학강실, 훈련관을 돌아보시면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치사상학에서 취급되는 강의내용을 청취

하시고 군인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강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식,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해고도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수 있도록 혁명적신념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눈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휘둘릴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끝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철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보다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전투원들은 고립무원한 적구에 홀로 떨어질수도 있는것만큼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해고도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수 있도록 혁명적신념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눈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휘둘릴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끝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철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지휘관들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권총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전투원들은 총탄 한발에 원수 한눈을 쏘아잡는 명사수가 되여야 한다고, 매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조준과 격발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중사격표리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준 중대장 김충성동무를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지휘관이 총을 잘 쏘는것을 보니 중대군인들도 명사수들일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군부대 전투원들은 최고사령관의 눈과 귀, 길잡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최고사령부의 작전

적구상을 실현하는데서 그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자면 자기들의 작전임무수행지역에 대하여 환히 알고있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적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훈련을 실속있게 하며 훈련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고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행동순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작전계획을 싸움의 겹지에서 현실성있게 세우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항상 이 순간이 지나면 싸움이 일어날수 있다, 싸움준비는 오늘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평시에 훈련을 잘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싸움준비에서는 래일이 없다는 자각을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삼 강조하지만 군사사업과 동맹어린 정치사업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당정치사업을 철저히 싸움준비완성으로 지향시켜야 한다고, 수산, 축산, 농농사의 3대열풍을 일으켜 후방사업을 개선하자는데도 싸움준비를 위한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지휘관들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권총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전투원들은 총탄 한발에 원수 한눈을 쏘아잡는 명사수가 되여야 한다고, 매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조준과 격발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중사격표리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준 중대장 김충성동무를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지휘관이 총을 잘 쏘는것을 보니 중대군인들도 명사수들일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군부대 전투원들은 최고사령관의 눈과 귀, 길잡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최고사령부의 작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흙 7련 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 1 3 1 3 군 부 대 를 시 찰 하 시 었 다



1 면 에 서 계 속

그러시면서 올해는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해였다면 다음해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전군이 싸움준비완성에서 자랑찬 성과

를 이룩하는 해, 그 어떤 강적도 단말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에 전투대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관하 조제현영웅중대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19명의 공화국영웅과 11명의 조국통일상수상자를 배출한 군부대군인

들이 싸움의 날 모두가 전투영웅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삼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313군부대의 군인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훈련명령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을 찾아서

평범한 날에 새겨진 비범한 령도의 자욱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이 온 나라에 끓어치는 이즈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심정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겨지는 고결한 총정의 자욱은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편된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에 소중히 수놓아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이 최고사령관과 지휘관들을 믿고 자기의 귀한 자식들을 맡겼는데 우리는 병사들의 친어머니가 되시어 온갖 사랑과 정을 부어 주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찾은 때는 정오의 높이 솟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정문에 들어서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안겨드리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판이었다. 이 공장에도 역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구나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을 찔었다.

천연화강석에 새겨진 불멸의 글방들을 읽으며 승업한 적정속에 젖어 드느라니 우리 군인들에게 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한평생이 소중히 되새겨졌다.

공장은 말 그대로 한복의 그림과도 같았다. 식료공장이 옹기 옹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말 그대로 불과 한해사이아 몰라보게 달라진 새로운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때에

는 공장의 새로운 모습에 반한다 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영광의 그날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지난 11월의 그날은 유난히도 맑게 개인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져내리던 평범한 로동일의 하루였다.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을 추동하는 본보기공장이 또 하나 생겨났다는 기쁨을 안으시고 이곳을 찾으신 그이의 반면에는 시종 환신스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이날 몰라보게 변모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결단 보고서도 현대적인 식료공장이라는 것이 일리라고,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고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식료공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해 흥분해 젖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자도시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자체기술력과 자로기자동화에 대해서까지 가능해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과학적안목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생산지형성을 돌아보시며 공장의 현대화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이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군들이 현대화에 대한 개념을 바라고야 한다는 것이 라고,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한 남의 공장의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령도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라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설비를 사다가 생산공정을 조립하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다. 우리의 현대화는 철저히 우리 로력과 기술로 생산설비들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대화의 기준에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일군들은 우리 식이란 말의 참의미를 두고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으며 더욱 크게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장사 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공장의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데 대하여 강조하실 때 우리 식 현대화로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높여 올리는 식료공장체제이 아닌 주체사상으로 활력에 넘친 조국 건설을 추동할수 있는 공장체제면 모되었다고, 다른 식료공장에서도 기술개선을 할 때 이 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공장 현지지도는 바로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을 마련

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며 모든 분야가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비범한 령도과정이라는 생각이 갈라들었다. 우리는 그이께서 들리시었던 곳 어디서나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중합가공직장의 컴퓨터조종실에 들리시어서는 실지 컴퓨터에 의한 통합조종정형도 확인하시고 고기맛 간장작업반에 가시어서는 일군들이 직접 간장맛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시였으며 고기가공작업반 생산현장을 감시하는 한명의 로동자를 보시고는 보시오, 생산현장에 설비들이 많은데 운영하는 사람은 적지 않소, 이것이 바로 현대화라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공해, 무인화 가 훌륭히 실현된데 대하여 그처럼 기뻐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지시하신 따듯한 미소와 고기통출입생산공정, 된장 및 간장생산공정, 빠다생산공정을 비로한 현대화된 공장들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웠는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 당화직장에도 들려보았다. 수산인력의 당화탕크들이 즐비하게 늘어 선 광경은 마치 식료공장이 아니라 화학공장을 연상시켰다. 현대화를 한

후 불과 몇명의 로동자들이 하나의 큰 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것보다도 더 많은 량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화가 이해서 좋다고 하는것이요,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은 험하게 하면서 생산은 곱절이나 더 할여나나

중합가공직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 우리 식 자동화, 무인화의 또 다른 측면을 엿볼수 있다. 지난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을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생산공정들의 설비들은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들여다놓은것으로서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갖

고기정량주입기에 원료를 보장하는 전복기와 기름주입기를 새로 제작하고 종전의 국물 주입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전반적인 고기통출입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식 현대화의 전미를 체험한 직장에서는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 손로동이 많이 남아있던 다른 중요생산공정의 원료투입정정도 완전히 자동화하고 공평생산기지의 설비들을 재배치하는 등 전반적생산

공정을 현대화의 요구와 우리 실정에 맞게 보충정비하였다.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지금 공장에서는 보다 적은 로력으로 생산에서 커다란 광적 및 절적성능을 이룩하고있다.

중전에 두개의 건조식품직장에서 생산하던 년간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된장을 새로 꾸린 건조식품직장에서 그 결빙정도의 로력으로 보다 질 좋은 생산할수 있었다.

당화직장 물엿작업반의 경우에도 생산공정의 인원을 늘이지 않고 현대화된 생산설비와 새로운 호소분해법으로 1.7배에 달하는 질적으로 개선된 물엿을 생산한다. 중합가공직장, 기름직장 등 현대화를 실현한 모든 직장들에서 많은 로력이 절약된 결과 공장에서는 이변에 새로 생긴 로동자정장을 비롯하여 새 제품개발로 늘어난 여러 공장들의 로력을 더 보충받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령도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된 동시에 높은 로력으로 생산의 광적 및 절적성능을 안아오는 현대화, 이것이 바로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일관하게 관통되어 있는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의 기준이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의 본보기, 표준을 마련한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기준 창조

멋쟁이로 소문난 공장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은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영광의 사적단위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벌써 이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여러차례나 현지를 오가시면서 친히 위치를 정해 주시고 군인들을 위한 멋쟁이식료공장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조국의 방편을 지켜 선 우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

자랑 높은 영광의 력사

이 먹이시기 위해 늘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세기에도 다 저물어간데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 한평생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대원수님공장에서 우리 식 현대화의 불을 지피고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날떠려 이 공장은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단위로 되었다.

원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공정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남의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의화를 들여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만 하는 편향성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생산지형성 정보실 종합지형성의 대형현시판앞에 서있다.

마주하고있는 벽면을 짙 채운 현시판에는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나 우리 나라의 최고인 공평통합생산관리체제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져 있다.

공정조종 및 관리체계, 동력관리지형체계, 품질관리지형체계, 생산일정작성지형체계, 업무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전반적생산공정들에 보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장사 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공장의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데 대하여 강조하실 때 우리 식 현대화로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높여 올리는 식료공장체제이 아닌 주체사상으로 활력에 넘친 조국 건설을 추동할수 있는 공장체제면 모되었다고, 다른 식료공장에서도 기술개선을 할 때 이 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기준 창조

우리와 동행한 부기사장 김철은 동무의 말에 의하면 현대화기간 우리 나라의 수습계 연구소들과 공장들이 참가하여 수백대의 현대적인 식료기계들과 설비의 설계와 제작은 물론 시운전까지 성과적으로 보충하였다고 한다.

특히 새로 꾸린 건조식품직장 당화직장의 경우에는 국내산 설비가 대부분인데 그 제작수준과 운영안정성이 높아 몇달동안 생산공정을 운영해본 로동자들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고기정량주입기에 원료를 보장하는 전복기와 기름주입기를 새로 제작하고 종전의 국물 주입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전반적인 고기통출입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식 현대화의 전미를 체험한 직장에서는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 손로동이 많이 남아있던 다른 중요생산공정의 원료투입정정도 완전히 자동화하고 공평생산기지의 설비들을 재배치하는 등 전반적생산

휴양소

이 공장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경탄부터 터뜨린다. 무릇 큰 식료공장이라고 하면 화려공정도 같이 구배에 빼어난 원형관들이라는 게, 육중한 탱크들 혹은 이 부분 특유의 발효공정냄새 등에 대해 생각하기가 일쑤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그러한 판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수만㎡의 밝은 샨라일들로 하나와 같이 산뜻하게 장식된 수습동의 생산건물들이며 직선, 직각으로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 마치 열병대가 정렬한것 같은 수삼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

멋쟁이로 소문난 공장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은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영광의 사적단위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벌써 이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여러차례나 현지를 오가시면서 친히 위치를 정해 주시고 군인들을 위한 멋쟁이식료공장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조국의 방편을 지켜 선 우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

자랑 높은 영광의 력사

이 먹이시기 위해 늘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세기에도 다 저물어간데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 한평생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대원수님공장에서 우리 식 현대화의 불을 지피고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날떠려 이 공장은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단위로 되었다.

원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공정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남의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의화를 들여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만 하는 편향성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생산지형성 정보실 종합지형성의 대형현시판앞에 서있다.

마주하고있는 벽면을 짙 채운 현시판에는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나 우리 나라의 최고인 공평통합생산관리체제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져 있다.

공정조종 및 관리체계, 동력관리지형체계, 품질관리지형체계, 생산일정작성지형체계, 업무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기준 창조

우리와 동행한 부기사장 김철은 동무의 말에 의하면 현대화기간 우리 나라의 수습계 연구소들과 공장들이 참가하여 수백대의 현대적인 식료기계들과 설비의 설계와 제작은 물론 시운전까지 성과적으로 보충하였다고 한다.

특히 새로 꾸린 건조식품직장 당화직장의 경우에는 국내산 설비가 대부분인데 그 제작수준과 운영안정성이 높아 몇달동안 생산공정을 운영해본 로동자들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고기정량주입기에 원료를 보장하는 전복기와 기름주입기를 새로 제작하고 종전의 국물 주입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전반적인 고기통출입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식 현대화의 전미를 체험한 직장에서는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 손로동이 많이 남아있던 다른 중요생산공정의 원료투입정정도 완전히 자동화하고 공평생산기지의 설비들을 재배치하는 등 전반적생산

휴양소

이 공장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경탄부터 터뜨린다. 무릇 큰 식료공장이라고 하면 화려공정도 같이 구배에 빼어난 원형관들이라는 게, 육중한 탱크들 혹은 이 부분 특유의 발효공정냄새 등에 대해 생각하기가 일쑤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그러한 판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수만㎡의 밝은 샨라일들로 하나와 같이 산뜻하게 장식된 수습동의 생산건물들이며 직선, 직각으로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 마치 열병대가 정렬한것 같은 수삼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



생산지휘정보실



롤출입생산공정



원장생산공정



맛내기생산공정



빠다생산공정



수립화, 원림화린 공장구내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